

담배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어 온 기호품이다.

그런 담배가 새삼스럽게 요즘에 들어 문제가 된 것은 왜일까?

물론,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요즘에 들어 젊은 여성의 흡연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여성의 흡연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다. 담배를 피운다고하는 것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성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담배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임신중에 담배를 피우면,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아기 때문에,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여성이 담배를 피워서 안 된다고 하는 항목은 물론 없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지만, 담배를 피우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일종의 제약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몇년인가 전까지 여성은 지붕이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 안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흡연은 몸에 나쁘다. 담배를 피운 사람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모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여성에게 있어서 담배는 하나의 저항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평등한 담배가 된다면, 담배를 피우지않게 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날지도 모른다.